

SK, 중국인 채용해 중국시장 개척

SK그룹, 한국 체류 중국인 대거채용 추진 ... 마케팅 · 트레이딩 주력

SK그룹이 중국시장 개척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들을 대거 채용한다.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현지인들을 채용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그룹차원에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을 공개적으로 채용하기는 이례적이다.

SK그룹에 따르면, SK를 비롯해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건설 등 4개 계열사는 채용사이트(joinsk.co.kr)를 통해 11월13일까지 국내 거주중인 중국인들을 수십명 단위로 채용한다.

채용 대상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2006년 2월 졸업예정인 중국인들로 계열사별로 마케팅, 트레이딩, 기획, 재무, 인사, 법무, 연구, PR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SK그룹이 중국인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현지사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사의 기업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획, 재무, 인사, 법무, PR 등은 기업활동의 핵심적인 분야로 대개 한국인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철저한 현지화를 위해 채용된 중국인들을 다수 배치할 계획이다.

SK는 중국인 채용에서 중국의 글로벌기업 근무 경험자, 석유제품 트레이딩 경험자, 통신관련 정부기관 근무 경험자, 중국 언론기관 경험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SK그룹은 2002년 SK텔레콤차이나 설립에 이어 2004년 SK가 중국지주회사인 SK 중국투자유한공사를, 2005년 9월에는 SK네트웍스가 선양(瀋陽)에 중국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0/26>